



‘일터 불심’을 배우자

최근 몇 년 사이 직장불교는 공무...

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직장불교회는 불교회의 존립...



분명한 ‘배움과 실천’ 의지 결속력·대외활동 등 귀감

이들 위해 직장불교회는 각 직장과...

사회적 기여, 종단 발전에 있어 직장...

김진홍(대한민국 경찰불교회 사무국장)

조계종도 禪도 없다

27만 색인 주제어 중 한국불교 200개 이하 영문 한국불서 부족이 원인... ‘세계화’ 무색

미국 내 의회도서관을 비롯해 주요 대학의 도서관이 보유하고...

적, 관련 논문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 중 한국불교 서적은 개괄적인 한국불교 교리와 배경, 역사...

이 목록집은 현재 미국 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에서 도서관목록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일본, 티베트 관련 영문 불교서적이 수천 권에 달하는데 비해 한국불교 관련 서적은 30여 권에 그쳐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색인학을 공부한 불교정보센터 부대표인 www.buddhapia.com의 정월 스님은 “한국불서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색인조사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불교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릴 기회가 줄어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또 “한국불교의 활발한 국제포교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문서적이 제공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외 출판사와의 연계, 한국불교 영문서적 출판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기자

“스님, 평소에 공부하세요”

바야흐로 스님도 공부 안 하면 제대로 대접받지 힘든 시대가 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는 2월 9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3·4급 승가고시 방법을 대폭 수정하며 ‘승가고시 강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요지는 고시를 수...

교로 했다. 올해부터 고시와 수계산람을 아예 분리·시행하는 4급 승가고시(3월 12일 중앙승가대)와 관련하여는 별다른 기준 없이 대부분 합격시켜준 외국인 사미니)에 대한 특별전형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조계종, 3·4급 승가고시 강화

산람입방전 4과목 시험

수행이력 등 활동도 반영

외국인 스님 ‘한국말’ 평가

승가고시 외에 면접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행이 뒤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는 것. 비구(니)가 수지 후 10년 뒤 치르는 3급 승가고시 산람(10월 18-24일)의 경우 입방 전 공통 필수인 <금강경> 시험을 보고 산람 후 2차 고사(15과목 중 3과목 선택)를 보면 지난해 방식과 달리 올해는 입방 전에 4과 과목을 한꺼번에 치른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수행이력과 활동(총점의 20%)에...

다. 승가고시

로 의사소통

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

으로 수행이

뒤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는 것.

고시위원장 법산 스님은 “올해는 3·4급 승가고시에서 ‘선시원 후산람’ 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며 “평소 자기 수행과 공부에 더 매진해 자기 수행의 증진은 물론 대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법장 스님 전방부대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군불교위원장 성광 스님 등과 함께 새해를 맞아 전방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2월 13일 육군 모부대를 방문했다.

국방부 군중실장 김말환 법사의 안내로 진행된 방문에서 법장 스님은 철책선을 도보로 둘러보고, 내부에 둘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남북통일에 대한 법문을 했다.

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특별법 관련 심판은 적법

천제 스님, 법규위 입장 재확인

조계종 법규위원장 천제 스님은 2월 10일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화합과 법치합력에 대한 법규위원장의 입장”을 발표했다.

천제 스님은 “법규위원회의 적법한 판결에 따라 지난해 말 총무원이 재심사 신청자들에게 대해 승격정 조처를 이행한 바 있으나, 불과 이를 만에 일부 소수 중앙종회의원들의 중환개정을 통한 사면요구에 따라 다시 유보한 것은 유감스럽고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재심사 서류 중인 자들에 중환개정을 통해 사면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행정부서가 징계확정을 결정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또 “법규위원회는 종헌이 보장한 최종의 심판기구이며, 그 심판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법상식”이라며 “해종 행위 특별법에 관한 심판”은 지극히 적법한 판결로, 그에 대한 이의제기는 법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사설사법법 보완 필요”

특위, 집행부에 개정 요청

조계종 중앙종회 사설사법 실태파와 특별위원회(위원장 효림)는 2월 11일 재가자 장건주 사찰의 경우 장건주 권한을 당대만 인정하는 것은 입법미비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보안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상정...

토록 집행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위원장 효림 스님은 “현재 종단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사찰현황을 보면 사설사법의 숫자가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사설사안이 종단 운영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설사법 종단 관리시스템 점검과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특위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국제부 신설

조계종 사회부에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된다.

총무원 한 관계자는 “국제 업무 담당부서 신설은 구성원들이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종단 조직 진단 결과 나온 뒤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될 것”이라고 2월 11일 밝혔다. 현재 국제 업무는 사회부 담당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임시총회 3월 16일

조계종 제162회 임시중앙종회가 3월 16일 오전 10시부터 20일까지 5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린다. 2003년도 중앙총무기 및 직역·특별담당 사찰 결산검사의 건,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후보 추천 동의 등이 안건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潤月)은 계절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더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 풍속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대,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성이 얼마남지 않았던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만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성에 대한 진한 사랑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진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혼합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고가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윤년 윤달에 “대광”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상 큰일을 당하여 급한 나머지 아무 수의나 임해드린 후 후두고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고품질의 수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경황없는 중에 저가품의 수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현재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저렴한 시기 윤달에 구입하시는 것은 이점점들을 고려해 볼때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3) 갑신년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삼베만을 골라 한층한층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비스듬한 제품을 그 동안 대광 삼베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되어야 매장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시지요.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동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